

# 한은 “금리 추가인상 신중할 것”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 운용키로... 물가상승률 안정에 역점

한국은행은 향후 추가 금리인상여부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로 하는 등 당분간 완화적 통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보고한 2018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금리·통화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향후 금리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 특히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는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겠으나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향후 금리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 영향과 국내외 여건 변화, 그에 따른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며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에도 주의할 기조를 유지하며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올 상반기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한은은 그러나 지난 1월 금통위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과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 농협은행 전북본부, 농업 종합자금 3000억 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관내 농업경영체에 농업 종합자금 명목으로 3000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 종합자금은 벼·채소·과수·화훼·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 연중 수시로 대출해주는 저금리 정책자금이다.

전북농협은 지난 한 해 281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농협은행 및 각 지역의 농·축협을 통해 3000억원 지원에 목표를 사업추진 중이다. /뉴시스

농업인은 관내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농·축협을 방문, 농업 종합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날 지역본부에서는 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농·축협 농업 정책자금대출 실무자 11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농협은행 김장근 전북본부장은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업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비너스 균일가 상품전 진행

롯데백화점 전주점, 13일 까지... 40~80% 할인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6층 이벤트홀에서 '일년에 단 한번! 비너스 균일가 상품전'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화운데이션 란제리 대표 브랜드인 비너스 란제리가 참여하며, 40~8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품목으로는 브라 1만5000원~2만원, 팬티 6000~9000원, 거울 1만5000원, 울인원 3만3000원, 남성팬티 1만1000원 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돼 있다.

전주점은 많은 여성고객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행사물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전주시시설공단-전주시지원봉사센터 '맞선'

전주시시설공단과 사단법인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략적 사회공헌의 일환으로써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공익활동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지역의 노후된 공공시설물 미관을 개선하는 페인팅 캠페인을 추진하며, 공원의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트리히그와 반려동물 선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을 펼치게 된다.

또 독거노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주택 수리 및 안전예방 활동도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뉴시스

## 농촌진흥청, 소외층 위한 희망 나눔 앞장

농촌진흥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지역 소외층을 위한 희망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농진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 7일 이음범 원장과 직원들이 완주군 사회복지시설인 이산모자원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저소득층 가정을 격려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지난해 개최된 국립농과원 성과보고회에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물품 기부로 실시된 바자회와 경매를 통해 모금됐다.

또 농과원은 부서별로 설 명절 전에 완주지역의 취약계층 등 어려운 세대를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은 김두호 원장이 오는 12일 김제시 푸른꿈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황정환 원장이 14일 완주군 독거노인·저소득층 가정을 방문,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양양범 국립축산과학원 원장은 8일 완주군 사회복지시설인 은혜의동산과 소외가정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고,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는데 작은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카카오, 판매출 2조 육박 '사상 최대'

카카오가 지난해 참가 이래 첫 매출 2조원에 바짝 다가서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다. 게임과 음원, 웹툰 등 콘텐츠 부문의 호조 덕분이다. 올해는 더욱 공격 경영에 나선 방침이다. 이서 매출 2조 클럽 가입 원년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는 작년 연간 매출 1조9724억원을 올려 전년에 비해 34.7%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다. 영업이익 1650억원, 당기순이익 1276억원으로 각각 42.1%, 94.9%가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에 비해 광고는 12%, 콘텐츠는 40%, 커머스 등 기타는 71% 늘어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특히 전체 매출의 70%정도는 콘텐츠 관련 사업에서 나왔다.

AI스피커 '카카오미니' 판매호조로

멜론 매출이 올라갔고, '배틀그라운드' 성장에 힘입어 게임도 잘나가면서 콘텐츠가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여기에 콘텐츠 부가사업으로 생기는 기타사업을 더해 경우 전체 매출 가운데 1조3767억원에 달했다. 광고 플랫폼 매출도 카카오를 중심으로 하는 플라츠친구, 알리픽, 오토뷰, 브랜드 이모터론 등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이날 “지난해 신규사업인 카카오 미니와 픽코마(일본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뱅크 등이 고르게 성장하며 새 영역에 대한 공격적 투자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11월 출시된 AI스피커 카카오미니의 사용률(WAU)은 90%로, 현재까지 8만대가 판매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 LH “익산신청사 사업비 제시 공식입장 아니다” 논란

“국토부와 회의를 파생된 문서 해당 의원이 입수한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북 익산시에 신청사 건립 사업비 1173억원을 제시했다는 주장은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도의회 김대중 도의원은 8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익산시 신청사 건립, 이것이 팩트”라며 “위탁개발사업자인 LH는 사업비로 1173억원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LH는 신청사 사업비 1173억원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지는 협의 과정에서 오고간 회의 자료에 명시돼 있으나 공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회의 자료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으며 당시 문서에는 대략적으로 3만4000㎡ 1173억원 중 순수건립비용과

금융비용 수수료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LH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공정한 사실이 아니며 그 문서를 입수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국토부와 LH간의 회의 과정에서 자료가 공개됐을 수는 있으나 공식적인 입장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LH 관계자는 “국토부와의 회의 과정에서 파생된 문서를 해당 의원이 입수한 것 같다”면서 “본사에서는 이를 알려준 사실이 없으며 공식적인 입장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익산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위탁개발사업자인 LH는 사업비로 1173억원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경우 익산시가 매해 57억원씩 20년간 이 돈을 갚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사업비 1173억원 제시는 LH에 확인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형열**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